

Still-life 에 관한 작업노트

정희승

나는 이 일군의 작업들을 편의상 Still-life 라는 제목으로 나의 다른 작업들과 구분지어 놓았다. 하지만 각각의 이미지들은 각기 다른 충동과 동기에 의해 만들어졌고 단일한 개념이나 선적인 내러티브안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들을 연작이라고 부르는 어렵다. 다만 이들은 모두 작업실이라는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안에서 이루어졌고 나에게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작업들은 창작에 선행하는 개념적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다. 작업실에서 발견되는 일상적 사물들을 관찰하고 때로는 즉흥적으로 연출, 기록한 것들이 쌓이면서 작업은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갔다. 사실상 이러한 자발적이고 무계획적인 작업방식은 다분히 의도된 접근이며 부분적으로는 동시대 사진예술에서 내가 느끼는 피로감에 기인한다. 지난 한 십년간 사진은 강력한 동시대의 예술적 매체로 떠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사진예술이 고도로 개념화되어 가면서 그 개념적 구조가 역으로 사진의 한계를 규정짓고 그 구조안에서 이미지는 개념을 건조하게 설명하거나 혹은 개념에 맞추어 과도하게 조작되었다. 나는 사진이미지의 힘은 그것이 감상자에게 심리적인 점화작용을 일으킬 때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의도와 논리보다는 우발성과 지속적인 관찰에 더 많이 의존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진이미지가 심리적 점화작용을 일으킬 때 도출될 수 있는 많은 의미있는 질문들은 개별적 감상자의 내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업은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없는 상태들'에 관한 이미지들이다. 이것은 잠들어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 상승과 하강 그리고 표면과 내부가 구별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래서 위태로워 보이지만 동시에 무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상태이고, 지치지 않는 '되기'becoming 의 상태이다. 사진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다. 계속 규정될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두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에 있어서 still-이란 정지를 의미하지만 이 작업에 있어서의 still-은 지속, duration 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다.

각기 독립적이고 자기충족적인 Still-life 이미지들은 매우 느슨한 관계를 갖는다.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 사물들 사이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파편화된 신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구멍이의 이미지는 당혹스러움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미지들이 공간을 점유하고 배치되는 방식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는 새롭게 정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세심하게 배치될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 안에서 작업은 완성된다. 나는 이러한 전시방식이 이 작업들을 하면서 내가 취했던 사유의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연관성이 없어보이는, 그러나 내적이고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선택된 몇개의 단어들-Liminal, Levitation, Light/shadow, Stillness 등-을 개별적으로 추적해 가다 보면 이들이 만나는 여러 교차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사실은 그 단어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Still-life 이미지들은 그 각각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팽창하게 될 작은 성좌 Constellation 이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전시의 맥락에서 constellation 의 배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 때 전시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정신적, 심리적 공간으로
제시될 것이다.